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속도 낸다

광주시, 내달 추진단 구성…11월 설계 용역 발주키로

R&D 특구·클린디젤 자동차 등 전략산업도 본격화

광주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 김치연구소 건립, R&D특구 지정,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이 하반기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1일 "최근 세계 김치연구소 광주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8월 중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30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11월 발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김치연구소 설립 부지인 남구 임암동 효천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2만1천294㎡에 있는 기존 김치종합센터 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치연구소 건립에는 사업비 45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매년 100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하게 된다.

시는 김치연구소가 오는 2011년 완공되면 9천50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파급효과와 1만5천577명에 달하는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사업'도 22일 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윤곽을 드러낸다.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첫 기획위원회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남대·조선대 교수 등 모두 122명이 참석해 클린디젤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연구용역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광주시는 기획위원회 등의 자문과 용역을 토대로 내년 10월 초 예비타당성 심사서류를 정부에 제출, 국책사업의 채택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R&D 특구 지정도 하반기에 결실을 맺는다. 시는 R&D 특구와 관련,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합의를 마침에 따라 특구지정 신청서를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R&D 특구 사전 환경성 검토 연구 용역을 8월 중 발주할 예정이며,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 특구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R&D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광주 첨단·하남·진곡·평동산단과 장성군 진원면 일대 4천800만㎡에 달하며, 사업비 규모는 모두 1조원이다.

시는 오는 2010년~2014년까지 특구 지정·조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광주의 산업구조를 연구 개발 인프라를 갖춘 지식경제기반 산업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시 재해예방 '뒷전'

"시비 64억 확보 못해 사업 차질 우려" 시의회 지적

'물폭탄'을 방불케하는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재해예방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에 따르면 시는 제방 축조·계획홍수위 확보·저수로 조성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270억원을 확보, 증심사천과 풍영정천·광주천2급·송정천·용산천 등 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는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 162억원(60%)과 시비 108억원(40%)을 투입할 방침이며, 정부로부터 조기집행 자금 82억원(51%)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비 108억원 중 2차 추경에 3억원 등 총 43억1천9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4억8천1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패널티가 적용돼 내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양혜령 의원은 "하계U대회 유치를 기념하는 200억원대의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겠다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해예방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매칭사업인 재해예방 사업비 64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국비 배정에서 패널티까지 받게 돼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비 부담분 전액 편성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으나 시의 재정 형편상 모두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오는 12월 열리는 '3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U대회 상징 조형물 무산될 듯

광주시의 200억원 규모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상징 조형물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10억원)를 심의하는 만큼 의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U대회 상징물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편성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여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200억원 짜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타당하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성과와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국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며 조형물 설치를 추진,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초호화판 조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北 억류 美 여기자 2명 "의료보호시설 수용중"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은 현재 '호화 호텔'이 아니라 '의료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기자의 남편인 마이클 샐데이트씨가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했다.

샐데이트씨는 19일 시카고에서 열린 석방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두 여기자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는 8월30일 총선을 앞두고 21일 일본 중의원이 해산한 가운데 아소 다로 총리가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54년만의 정권교체?

중의원 해산…총선전 돌입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됐다. 오는 9월 10일로 4년 임기의 만료를 1개월 보름여 앞둔 해산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으며, 오후 1시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요헤이 의장이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중의원 해산 직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8월 18일 중의원 선거 공시, 8월 30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하에서 자민당이 압승했던 2005년 9월 이른바 '우정선거' 이래 약 4년 만이다. 중의원 선거가 8월에 실시되는 것은 종전 이후 현행 헌법하에서는 처음이다.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여야는 차기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40일간의 장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아소 다로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권유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우세한 가운데 자민·공명당의 여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7·12 도쿄 도의회 선거 등의 승리 여세를 몰아 54년간의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재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획득할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 그리고 관료주도 정치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변화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중의원의 정수는 480명이다.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 300명을 뽑고 나머지 180명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출한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 중심의 야당에 정권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민당으로서는 1955년 창당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정권을 내주게 된다. 자민당은 1993년 분당으로 인해 10개월 가량 정권을 빼앗긴 바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적반하장' 정광학원

박진표 사회1부 기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잘한 사람을 꾸짖는다는 의미다.

교원채용 비리를 저지른 광주 정광학원에게 꼭 들어맞는 고사성어다. 올 2월 교원 6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뒤 반성은커녕 비리를 고발한 전 이사장과 언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정광학원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이사장과 이사, 정광고 교장, 교감(현 정광중 교장) 등 관련자 4명의 해임을 법인에 요구했다.

이후 이사장과 이사는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법인은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의 처벌만 내렸다. 교감은 같은 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동안 성적향상에 기여했고, 우수 교원을 뽑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우수 교원이란 채용시험 성적은 낮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채용시험을 치렀는지 묻고 싶다. 학교 측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유명 '강의기술자'를 모셔오는 게 낫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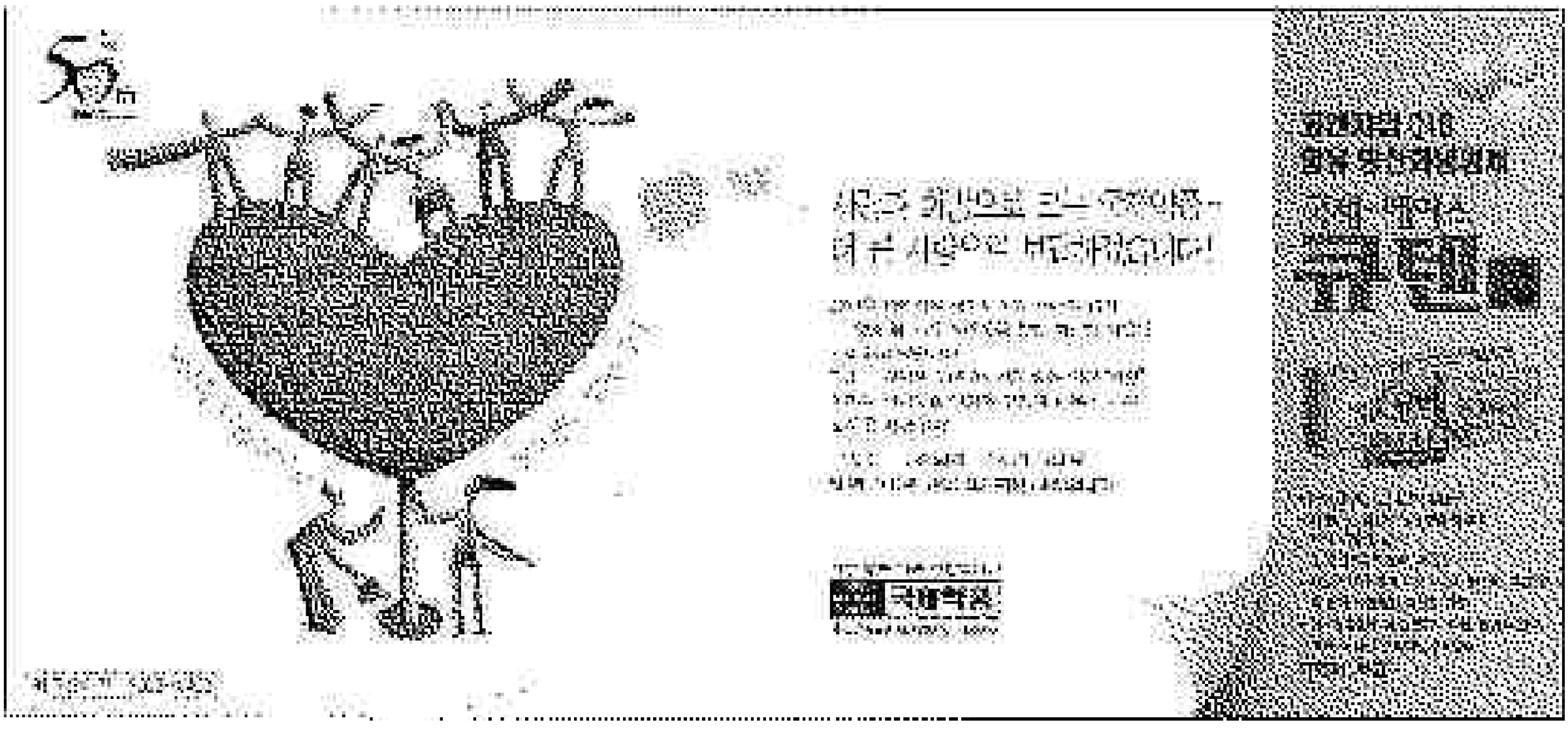
결국, 채용시험에 응시한 나머지는 들러리였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탈락한 이들은 우수 인재가 아니라서 떨어졌다는 오명마저 뒤집어 쓰게 됐다. 채용비리로 탈락한 것도 억울할 텐데 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정광학원의 '말도 안 되는' 버티기에 또 한번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해당 학교로 배정된 교실 냉·난방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학생들의 피해를 염려한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 '두 교장을 해임할 경우 행·재정 중단 조치를 풀겠다'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정광학원은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다.

기존에 설치된 낡은 에어컨으로 여름을 버티면 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두 스승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수백 명의 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정광학원의 처사가 밉지만, 사립학교의 특성상 더 이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비리에 대해 해당 법인에 처벌을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직자다. 모든 혜택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하다. 공직자에게는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는 더욱 그렇다.

정광학원의 두 교장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올바른 인간이 되라'는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까. 교육자다운 결단을 기대한다. / lucky@kwangju.co.kr